

서울특별시

중랑구, 매주 수요일 원산지표시 캠페인 펼쳐

중랑구(구청장 문병권)에서는 올 연말까지 검재길 주변 및 동원시장 부근, 사가정역 등 지역내 역세권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을 매주 수요일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11일 구에 따르면 이번 홍보 캠페인은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조기 정착시켜 음식점 영업주들이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지키지 않아 처벌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음식점을 방문한 구민들이 정확한 음식 식재료 정보를 제공받아 믿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10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진행되는 홍보캠페인에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를 위해 선발한 희망근로자 및 직원 17명이 원산지표시제 어깨띠를 두르고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자율 확대 대상품목에 대한 안내, 원산지 표시 대상 및 방법 등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한다.

특히 음식점원산지 의무표시대상 5개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쌀) 및 올 4월부터 늘어난 자율 확대대상 22개 품목(농산물 고추, 당근 등 7개 품목, 미꾸라지, 장어 등 수산물 14개 품목, 오리고기 축산물 1개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다.

한편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지난해 7월부터 점점 늘어가는 수입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축산 농가를 보호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구민의 식생활 안전과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

AI 비상대책 상황실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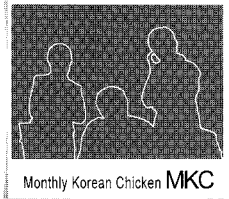
경기도는 철새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고병원성 AI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내년 4월까지를 철새에 의한 고병원성 AI 비상방역기간으로 지정·운영키로 하고 비상대책 상황실 운영, 소독약품 농가 배부 및 소독강화, 정기적 예찰 활동 및 가검물 검사 등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도는 소독약품 12톤(3억원)을 농가에 배부하여 소독을 강화토록 조치했으며, 비상시를 대비 9톤(2억5천만원)도 비축하는 등 방역태세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비상방역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먼저 도·연구소·시군별 상시 방역상황 유지를 위한 기관별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의심축 신고(신고전화 운영 1588-4060)에 조기 대응하고, 11월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가상훈련(CPX)을 실시하여 비상방역 대응 능력을 높인다.

또한 발생 위험이 높은 집중 사육지역에 대해서 3일 간격으로 농장별 임상 예찰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유입가능 경로(철새 → 텃새 → 닭·오리)를 고려하여 철새도래지 분변검사, 재래시장 유통 닭·오리, 농가 사육 평·메추리·오리 등에 대한 AI검사와 신종인플루엔자 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이와 함께 AI의 청정유지를 위해 AI 질병의 특징, 소독 등 차단방역 세부방법, 발생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현장 맞춤형 집중 교육을 10~12월중 지역별로 추진하고, 문자메세지·반상회보·인터넷·언론 등을 통해 반복 홍보하여 차단방역 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한편 도, 연구소, 시·군 합동 교차점



검반을 편성하여 11월 2일~4일까지 전 농가(1,907호)에 대한 일제 소독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매주 소독의 날’에는 축분비료업체, 재래시장, 도축장, 계란집하장 등과 운반차량 등 분야별 AI 집중방역을 실시한다.

한편 비상방역 기간중 단속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위반 회차별 50~300만원)을 하게 된다.

도는 먹을거리 안전과 한·EU FTA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청정화가 최우선 과제로 보고 청정농장을 육성 지원하고 방역소홀 농가는 행정처분과 함께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류독감’이란 잘못된 표현으로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소비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류 인플루엔자’로 명칭을 통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천시 ‘축산특구’ 지정 추진

포천시는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축산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0월 1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 내년 초 지식경제부에 특구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신북면과 영북면, 영중면 등 4곳에 70만~80만㎡ 규모의 축산특구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

축산특구는 축산 관련 R&D 시설과 유통 시설 등이 집중 유치돼 축산업의 거점역할을 하게 된다.

특구로 지정되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없지만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줄어 관련 산업 유

치에 도움을 주게 된다.

시 관계자는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며 “특구는 기존 축산 농가를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과 연계된 산업을 집적화하는 개념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AI 상시방역대책 추진 강화

강원도는 북방철새 도래시기(10월 중순~12월)로 AI 유입 위험성이 높아진 데다 중국, 몽골, 베트남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재발방지를 위해 상시방역대책 추진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기에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대책으로는 AI 방역대책 상황실이 북방철새 도래시기인 10월 16일부터 남방철새 통과시기인 2010년 4월 30일까지 도 및 시·군에 평일뿐 아니라 휴일에도 운영되며, 가금류 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횟수 강화 및 유입가능 경로별로 기존의 닭·오리·철새에서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류에 대한 예찰 검사를 확대한다.

또 농가 차단방역 등 가금류 농장 종사자, 재래시장 가금류 판매업자, 가금류·분변·사료 등 차량운전자, 유관단체 등 방역관계자에 대한 현장방역 맞춤형 집중교육 및 홍보와 AI 방역관련 가족운반차량 등에 대한 소독 실태점검 및 불법적인 가금류 도축판매 단속 등 취약지역 관리강화추진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 예방수칙은 축사·분뇨처리장 내 야생



시·도·소·식

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 그물망 설치, 비닐 포장 등 차단조치를 할 것과 사료저장통 주변 등 축사 주위의 사료를 깨끗이 제거해 야생조류가 접근할 환경을 사전에 제거할 것이다.

또한 외출후에는 반드시 축사 전용 장화로 갈아 신고 발판소독조에 소독 후 축사에 출입해야 하며, 철새도래지에는 가금적 방문을 자제하고 중국·러시아·몽고·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AI 발생 국가 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가족에 이상 징후 발견시 즉시 관할 시·군, 시험소 등 가축방역기관에 신고를 반드시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닭갈비·막국수 다양한 요리방법 개발

춘천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인 닭갈비, 막국수를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는 요리법이 개발돼 시내 음식점에 제공된다.

춘천시와 막국수닭갈비축제조직위원회는 오는 12월 18일까지 지역내 음식점과 호텔 등이 레시피(요리자료)를 요청할 경우 다양한 막국수·닭갈비 레시피를 제공키로 했다고 지난 10월 20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요리법은 지난 8월 축제기간 중 열린 제2회 춘천향토음식 전국요리대회에 출품됐던 메밀과 닭요리 50종이다.

이번에 개발된 요리는 닭다익선, 닭고기완자 떡볶이 등 주로 퓨전요리이다. 음식점이 이들 요리를 메뉴로 만들 경우 한림성심대 관광외식조리과에서 조리법을 알려주고 컨설팅도 지원한다.

참가업소는 메뉴판에 춘천밥상이란 표기만 하면 요리명은 자유롭게 바꿔 쓸 수 있다.

관심이 있는 업소는 춘천시 관광과(033-250-

3072)나 축제 상황실(033-250-4347)로 연락하면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충청남도

AI 방역대책 강화

충청남도는 북방 철새가 오는 때에 맞춰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마련, 질병예방에 나선다.

충남도는 지난 10월 19일부터 내년 4월까지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시근무와 더불어 방역실태도 주(週)단위로 바꾸기로 했다.

또 가금류를 기르는 농가에 대해선 임상관찰 확인을 매주 1회에서 3일 간격으로 늘리고 효율적 예방을 위해 AI 상시방역예찰정보화시스템도 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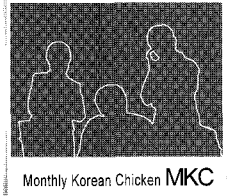
예찰검사 대상은 닭, 오리, 철새에서 메추리, 칠면조 등 기타 새로 넓히고 예방교육도 맞춤형으로 11~12월 중 집중한다.

충청북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나서

기온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고, 북방형 철새 도래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충청북도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예방에 나섰다.

충청북도는 지난 10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닭과 오리·야생조수 등에 대한



광범위한 예찰과 방역활동을 벌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계획이다.

충청북도는 이 기간 각 기관별 상황실을 운영 하고, 인력과 장비 등을 점검하며,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도 운영하기로 했다.

대구광역시

추계 가축예방주사 실시

대구는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와 인수(人獸)공동 전염병 예방을 위한 '추계 가축예방주사'를 실시한다.

예방주사 실시기간은 오는 11월 8일까지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예방접종은 총 7종 372천두로 이 중 닭은 뉴캐슬병 300천수이다.

가축예방주사 실시방법으로는 닭 뉴캐슬병의 경우 사육농가에 직접 약품이 배부된다.

울산광역시

하반기 가축예방주사 실시

울산시는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인수(人獸)공동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하반기 가축예방주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방주사 실시기간은 오는 12월말까지이며, 울산시는 구·군별로 소, 돼지, 닭은 공급계획에 따라 농가에 배부, 자율접종토록 하며, 광견병은 공

수의를 활용하여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예방접종은 총 4축종 5품목 136만3000두(수)분으로 닭뉴캐슬병은 125만수 분이다.

경상남도

조류인플루엔자 예방활동 본격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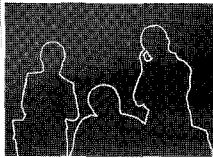
경상남도는 오리, 닭을 대상으로 혈청검사와 분변 검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청정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예방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남도는 국내에 발생했던 조류인플루엔자(AI) 주요 전파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철새 이동 시기를 앞두고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국가인 중국, 몽골, 러시아 등도 겨울 철새 이동 경로에 위치하고 있어 동 질병의 유입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AI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지난 10월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도를 비롯해 전 시·군, 축산진흥연구소 등 도내 25개 기관에 AI 방역상황실을 지난 16일 설치, 내년 4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방역상황실은 비상상황을 유지하고 기존 닭, 오리, 철새로 국한됐던 예찰대상을 메추리, 칠면조 등 기타 가금류까지 확대하는 한편 농가사육 오리, 닭 등에 대한 혈청모니터링 검사와 분변 검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경남도는 겨울철새 이동 시기에 양산과 철새가 많이 찾는 창녕 우포늪, 창원 주남저수지 등과 같은



철새 도래지 주변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주 1회에서 3일 간격으로 임상예찰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관상용 조류와 육계에 대한 주 1회 이상 예찰을 실시하고 친환경농법 사육오리 조기 도축·도태 등으로 발생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공무원, 공수의 등 질병 예찰요원을 농가별 책임 담당자로 지정해 현장방역을 강화하고 축산농가 AI 예방수칙, 의심축 신고요령 및 보상체계, 외국인 근로자 방역 관리 지침 등 방역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방역이 취약한 재래시장이나 가축분뇨 운반 차량에 대한 소독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가금류 불법 도축 판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점검할 방침이다.

도농업기술원, 가축사양관리 기술지원 강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원장 송근우)은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철을 맞아 환절기에 대비한 가축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특히 기온이 내려가면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 계통 질병 예방을 위한 환절기 가축사양관리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면역력과 체력이 약한 어린 가축들은 특히 온도와 습도 등 환경변화에 의한 대사 불균형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를 통해 생산성 저하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닭은 계사 주변 철저한 차단방역과 소독 관리가 안전한 사양관리가 필요하며 닭에 대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병은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닭 질병 원인은 환절기 온도와 환기 관리, 그리고 방역 위생관리 소홀에 따른 것으로 환절기 계사 온도와 환기관리는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전리남도

AI 방역대책 강화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으로 양계농가 등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는 전남지역에 철새 유입철이 도래해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남도는 중국 등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고병원성 시가 발생되는데다 최근 북방철새가 몰려옴에 따라 도내 27개 소에 AI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등 예찰 및 차단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3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도내에서 시가 발생했으며 이는 철새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중국 등 최근 시 발생국가가 국내로 유입되는 겨울철새 이동경로에 위치하고 있어 철새에 의한 AI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철새 도래시기에는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임상예찰을 매주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8월 칠레의 칠면조농장에서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 예찰검사 대상을 닭, 오리에서 메추리, 칠면조 등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닭, 오리사육농가 등에 대한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차량 및 방문객 출입 통제, 축산 관련 시설의 소독 등 차단방역 실태 지도·점검, 방역 대상자별 맞춤형 집중홍보 및 AI 발생대비 가상 훈련 실시 등 현장방역 조치를 강화해 AI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남도와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시·군별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10월 19일부터 격주제로 닭, 오리사육농가, 도축장 및 가축운반차량 등에 대한 소독시설 및 소독실태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축 사육밀도 완화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밀폐형 또는 환기시설 불량축사 등에 대한 축사 환기 개선, 햇볕 등 자연 면역력을 활용한 질병예방을 위해 축사 환경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과수원·닭 공존하는 자연순환농법 성공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가 과수원에 닭을 방목하는 자연 순환농업을 시범 추진한 결과 과일 맛이 좋아지고 닭의 육질도 좋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월 28일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강진 작천면 소재 배 과수원에 '황금닭' 200마리를 입식해 9월까지 일반사육과

방목사육 간 증체량과 사료 이용률 및 폐사율 등 생산성 비교시험을 실시했다.

비교시험을 통해 특히 과수농가에서는 과수 수확 시기에만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반해 과수원 내에 닭을 방목함으로써 과수에 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닭은 충분한 햇볕 속에서 자유로운 운동을 하고, 맑고 깨끗한 자연 속에서 주위환경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돼 건강한 닭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험 결과 과수에는 일체의 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일반사육 닭에 비해 방목사육 닭에서 사료섭취량이 13.5% 줄었고 평균 체중은 217g 감소한 반면 육질검사에서는 쫄득거리고 씹는 맛과 고기향미가 다소 좋았으며 지방함량도 13.4% 낮게 나타났다.

농약 잔류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안전성이 확인됐으며 사양시험 기간동안 질병으로 폐사된 닭도 없었다.

여기에 과수와 방목축산 병행으로 제조제가 필요없게 됐을 뿐 아니라 유기농 과일 및 친환경 닭 생산으로 과수농가의 소득증대 및 주위 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축산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과수원 방목축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야생조수 등의 접근을 차단해 폐사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신청사 착공

광주광역시시에 있는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와 축산시험장이 전남 강진군으로 이전한다.

전라남도는 지난 10월 21일 강진군 작천면 군자리 이전부지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기술연구소 신청



시·도·소·식

사 가공식'을 열었다.

내년 7월 완공 예정인 신청사는 60여만㎡ 부지에 한옥형인 본소와 축산시험장 등 모두 28개동, 1만 3,000여㎡의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특히 축산시험장은 소와 돼지·닭 등 가축을 사육하면서 이를 실증시험할 수 있는 현대화된 축사와 연구동을 갖춰 시험연구사업 뿐 아니라 친환경축산 체험시설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전라북도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방지대책 추진

전라북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방지대책 추진을 강화한다.

지난 10월 17일 도에 따르면 그 동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재발을 막기 위해 능동적 검사 중심의 '시 상시방역체계'를 구축·운영했지만, 북방철새 도래시기(10월 중순~12월)로 AI 유입 위험성이 증가되는 것과 관련해 상시방역 강화대책을 시달렸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0월 19일부터 비상방역체계를 가동, 방역기관별 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리 검색해 내는 사전예방 중심의 예찰을 강화해 오리사육 전 농가를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예찰검사 대상을 닭·오리·철새·메추리·칠면조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신종인플루엔자 검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1월중 발생을 대비한 가상훈련을 실시하는가 하면, 재래시장 방역관리 및 가금류 운송

차량에 대해 소독점검 등을 강화해 사전에 발생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교래 토종닭 유통특구 선포



교래 토종닭 유통특구 지정 및 선포식이 지난 10월 22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종합복지회관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교래리는 1970년 말부터 토종닭 마을로 알려졌고, 마을내에 토종닭 전문음식점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특성을 감안, 토종닭 유통특구로 지정됐다.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교래리는 지역의 유명 축산물인 토종닭을 이용,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 투어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교래 특구를 전국적인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인근 관광지와 연계 홍보함은 물론 토종닭 음식점을 대상으로 축산물 수거검사와 토종닭 납품농가에 대한 출하전 생체잔류물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